

## <어느 택시기사의 불면증>

“어릴 적 동창 중에 김영란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6년 내내 반장, 회장을 했을 정도로 똑똑했죠. 조용조용한데 강단 있는 성격 있잖아요. 개가 그랬어요. 근데 참 희한하지. 그 이름 가진 사람들은 다 똑똑한가 봐요.”

작년 연말, 나는 오후 촬영에 쓰일 소품을 집에 놓고 오는 바람에 점심시간을 틈타 직장이 있는 충무로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 집으로 향했다. 택시기사는 혼자서 만담을 하듯 반말, 존댓말을 섞어가며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모 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10년 전 퇴직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그는 승객과 대화하는 것이 취미인 듯했다.

“김영란법이 중심지 바닥을 바꿔놓았다니까. 왜 종로 같은 데 말이에요.”

종로 바닥을 바꿔놓다니! ‘김영란법’이 전설의 주먹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변죽을 울리는지 눈치 채지 못했다.

“접대 받던 사람이나 하는 사람 다 사라지고 연말 종로 밤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안 그래도 새벽까지 운전하는 게 힘에 부쳤는데 잘 됐지 뭐. 핑계 김에 심야운전을 예전만치 안 해요.”

생각해보니 얼마 전부터 종로의 밤 풍경이 달라지기는 했다. 그 무렵 여느 때 같으면 종로 거리는 송년회 등 각종 연말 행사를 치르고 나온 취객들로 넘쳐났다. 그런데 2016년 연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직장인들도, 거리 한편에서 더 부룩한 속을 달래는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도 전에 비해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공공기관, 기업의 홍보 간행물을 대행 제작하는 기획사에 다녔던 나는 취재와 촬영, 편집과 교정·교열이 주요 업무였다. 그리고 연말에는 대부분의 홍보 기획사들이 그러하듯 간행물 제작과 함께 재계약을 매끄럽게 성사시키기 위한 발주사 접대를 제법 했다. 저녁까지 교정·교열을 보고 고객을 만나 식사 대접에 술 한 잔 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 있었다. 그야말로 별 보며 출근해 별 보고 퇴근해야 하는 ‘새벽별 보

기 운동' 이었다.

그런데 2016년은 달랐다. 야근은커녕 정시에 퇴근하는 일이 많았다. 집에 일찍 가면 식탁 위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이제 갓 지은 잡곡밥이 올라왔고 엄마와 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다정하게 식사를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는 반려견 푸코와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거닐었다. 기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 모든 변화가 청탁금지법이 내게 가져다준 작은 선물이었음을 득도하듯 깨달았다.

“손님들 술 먹고 토한 거 안 치워도 되니까 살겠어요.”

취객들의 뒤치다꺼리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이 후련해 보였다. 사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그는 주말, 심야 손님이 줄면서 택시 경기가 나빠질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생활패턴이 조금 바뀌었을 뿐 수입에 별 차이는 없었다. 예전에는 낮에 자고 밤에 일했다면 이제는 주말을 빼고는 평일 대부분을 낮에 일하게 되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간 남들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낮에 손님이 꽤 있어서 심야 운전 횟수를 줄인 것에 후회는 없다고 했다.

나의 경우도 그와 비슷했다. 그 무렵 홍보기획사들은 청탁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보 발행을 담당하는 직원과 발행인, 즉 기업의 회장도 법의 주요 적용대상인 언론인에 속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보 때문에 경영활동을 편하게 못 할 바에야 폐간을 선택할 것이라 걱정했다.

“요즘 사보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주변에서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폐간된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사실 출판사, 기획사, 잡지사 할 것 없이 수 년 전부터 불황이었어요. 이제 온라인 매체가 대세여서 그렇죠.”

어쩌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은,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핑계였을지 몰랐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기사와 나의 삶이 알게 모르게 연결돼 있음을 느꼈다. 운동회 릴레이 주자들처럼 서로 다른 삶들이 바통을 주고받으며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었다. 물론 누군가가 건네준 바통이 향기 가득한 꽃일지, 손에 쥐는 순간 아프게 찢리는 가시덩굴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잠깐 침묵이 흐르자 그가 불쑥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심야 운전하면서 불면증이 생겼어요. 새벽까지 술꾼들 상대하면 많이 지치거든요. 이상한 건 피곤한데 집에 가면 잠은 또 안 와. 그러니 두통에, 불면증에 골골댔지. 아무 잘못 없는 마누라한테 짜증내는 게 일이었고.”

그는 요즘 가족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에는 야식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사가 아내와 둘이서 맥주 한 잔 곁들여 먹는데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에 없이 곰살맞게 군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은 마누라랑 맥주 한 잔 하고서 금세 푹아떨어지니까. 약 먹어도 끄떡 없던 병이 이렇게 쉽게 나아질 수 있구나, 놀라고 있어요. 김영란법이 웬만한 병원보다 나아요.”

그때까지 나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언론인, 사학인 등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만 본 것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새 우리 사회를, 더 나아가 나의 일상과 문화를 바꾸고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온 김영란 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청탁금지법에 얽힌 다양한 일화들을 주고받았다.

얼마 전 내가 다니는 기획사로 모 공기업 사보 담당 직원이 최종 교정을 보러 왔다. 나는 회의실에서 교정을 보는 그에게 간식으로 샌드위치를 주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먹기가 좀……. 다른 분 드리세요.”

“겨우 삼천 원짜리에요. 드셔도 별 문제 없어요.”

샌드위치를 다시 가지고 나오기가 어색해 탁자 위에 슬며시 두고 나왔다. 두고 가면 알아서 먹으려니 했다. 하지만 회의실을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손도 대지 않은 샌드위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기획사에서 일하며 식사나 커피 대접이 일상이었던 나로서는 처음 느끼는 문화적 충격이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서 기사가 말했다.

“많이 당황했겠어요. 허허.”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구나, 감탄하게 돼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택시기사가 잠 못 들고, 그가 태운 승객들도 고통 받는 세상이었다. 잘못된 관습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 여기며 청탁금지법이 가져오는 변화를 곱고럽고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사의 불면증에 차도가 있고 그와 나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주어진 것처럼 변화는 느리더라도 점차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택시가 의정부에 다다를 때쯤 얼마 전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동생이 결혼하면서 나는 엄마의 유일한 동거인으로 남았다. 하지만 직장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 붙어있지 못했다. 엄마는 혼자서 밥을 먹기 싫다며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 나는 그런 엄마에게 어린애냐고 지청구를 해댔다. 물론 그러고 나면 마음은 늘 편치 못했다. 모처럼 함께 저녁을 먹던 그날은 오랜만에 엄마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농담을 섞어가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딸내미랑 저녁 먹으니까 좋네. 너 없으면 오늘 저녁도 걸렸을 텐데.”

나는 밥 한 공기를 똑딱 비우는 엄마의 모습에 행복했다.

집 앞에 도착한 나는 택시에서 내리며 그의 행복한 일상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기원했다.

“오늘도 아내 분과 맛있는 야식 드세요.”

택시가 떠난 뒤 청탁금지법에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우리 사회에 기분 좋은 향기를 전해주는 ‘온 국민 행복법’ 이라고.

문득 택시기사의 동창인 김영란 씨가 진짜 김영란 위원장은 아닐까 엉뚱한 생각에 나는 택시가 떠난 자리에 잠시 서있었다.